

MBC 귀중

2024년 총선거획 조사

3차 패널조사
결과 보고서

2024. 02. 05.

일러두기

- 본 조사의 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복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척도형 문항(예: 매우 + 다소)의 두 개 응답을 합산하여 제시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합산하여 반올림하였으므로 척도의 단순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언론 공표 혹은 인용 시에는 조사개요를 참고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 보도지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는 패널조사로서 1회성 조사가 아닌 2024년 4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사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허락하고, 조사 기간 동안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만 실시한 조사로 일반적인 전국 조사와의 결과 비교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조사의 주요 목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심의 방향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 정도의 변화 양상과 그 이유를 포착하고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목차

1장. 조사의 개요

I. 조사의 목적	5
II. 조사 설계	6
III. 조사 내용	7
IV. 표본의 특성	8

2장. 조사 결과 분석

I. 대통령 국정운영 및 정당	10
1.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10
2. 정당 지지도	11
3. 총선에 대한 인식	12
4-1.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정당(3당 구도)	13
4-2.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정당(신당 포함, 5당 구도)	14
5.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 정당	15
6. 비례의석 제3세력 비중	16
7. 직무수행 평가(주요 당 대표 등)	17
8. 정치관련 인식	18
9. 22대 국회 중점 이슈	19
10-1. 일상 갈등 체감: 경제적 계층 간 갈등	20
10-2. 일상 갈등 체감: 이념 간 갈등	21
10-3. 일상 갈등 체감: 수도권·지방 간 갈등	22
10-4. 일상 갈등 체감: 세대 간 갈등	23
10-5. 일상 갈등 체감: 남녀 간 갈등	24

1장

조사의 개요

- I. 조사의 목적
- II. 조사 설계
- III. 조사 내용
- IV. 표본의 특성

I. 조사의 목적

본 패널조사는, 22대 총선에 대한 여론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2024년 4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는 조사임. 1,508명의 패널을 선정하여, 동일 대상을 반복 조사하여 MBC 보도용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조사의 목적 및 기대효과를 흐름도(Flow-Chart)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조사대상 및
표본수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265명



수집자료

- 대통령 국정운영 및 정당
- 총선 관련 이슈
- 선거 관련 태도 등



기대효과

2024년 총선에 대한 여론흐름 파악



보도 자료로 활용

II. 조사 설계

MBC 2024년 총선거획 조사 (3차 패널조사)

조사 의뢰자	MBC
조사 기관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지역	전국
조사 기간	2024년 01월 30일 ~ 02월 03일(5일간)
조사 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률	1,495명(1차 조사 응답자 1,508명 중 2차 조사 시 강력거절자 13명 제외)
조사 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CATI)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웹조사 병행
표본 크기	1,265명 (가중값 적용 사례수: 1,265명) - 전화면접조사 : 506명(전체 표본 대비 40.0%) - 모바일 웹조사 : 759명(전체 표본 대비 60.0%)
패널유지율	83.9% (총 1,508명의 패널 가운데 2차 조사 시 강력거절자 13명을 제외한 1,495명에게 접촉하여 1,265명 완료)
응답률	- 전화면접조사 : 86.8% - 모바일조사: 99.1%
가중치값 산출 및 적용방법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2.8\%$ point

III. 조사 내용

MBC 2024년 총선거획 조사 (3차 패널조사)

대통령 국정운영 및 정당

-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정당 지지도

총선 및 정치 의식

- 총선에 대한 인식
-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정당(3당 구도)
-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정당(신당 포함, 5당 구도)
-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 정당
- 비례의석 제3세력 비중
- 직무수행 평가(주요 당 대표 등)
- 정치관련 인식
- 22대 국회 중점 이슈
- 일상 갈등 체감: 경제적 계층 간 갈등
- 일상 갈등 체감: 이념 간 갈등
- 일상 갈등 체감: 수도권·지방 간 갈등
- 일상 갈등 체감: 세대 간 갈등
- 일상 갈등 체감: 남녀 간 갈등

응답자 특성

(2차조사 미참여자)

- 학력
- 정치 뉴스 소비 빈도
- 정치 뉴스 선호 채널
- 21대 총선 지역구 투표 정당

IV. 표본의 특성

구분		실제조사 사례수	%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	%
전체		(1,265)	100	(1,265)	100
성별	남성	(667)	53	(628)	50
	여성	(598)	47	(637)	50
연령	18세-29세	(177)	14	(205)	16
	30대	(217)	17	(186)	15
	40대	(241)	19	(225)	18
	50대	(263)	21	(250)	20
	60대	(223)	18	(219)	17
	70세 이상	(144)	11	(180)	14
지역	서울	(256)	20	(237)	19
	인천/경기	(408)	32	(404)	32
	대전/충청(세종)	(126)	10	(136)	11
	광주/전라	(126)	10	(123)	10
	대구/경북	(118)	9	(122)	10
	부산/울산/경남	(179)	14	(189)	15
	강원/제주	(52)	4	(54)	4

2장

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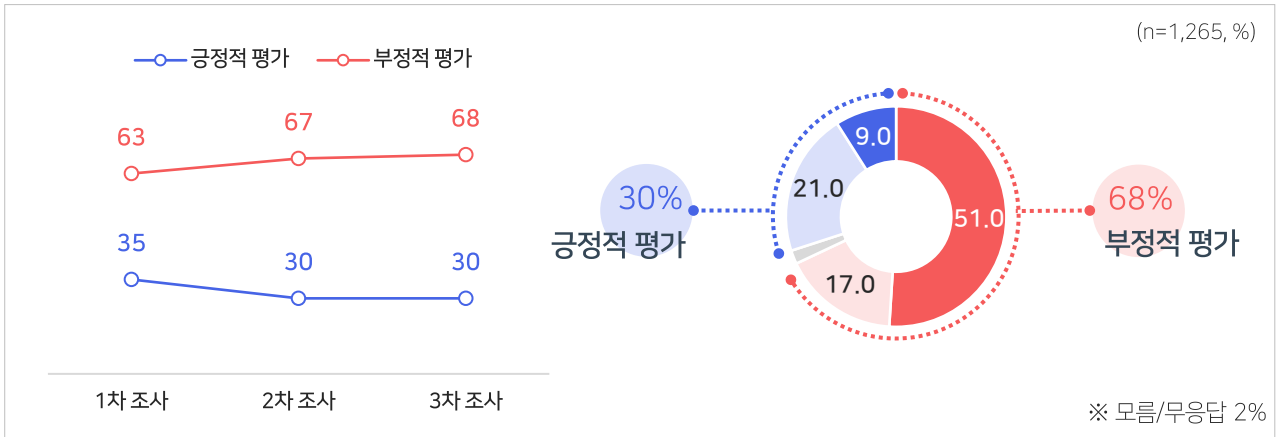
I. 대통령 국정운영 및 정당

1.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문1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매우+잘하는 편)는 긍정적 평가는 30%,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하는 편)는 부정적 평가는 68%임(모름/무응답 2%).
- 2차 조사 대비 긍정적 평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 '긍정적 평가'는 60대 이상(60대 46%, 70세 이상 62%), 대구/경북(46%), 부산/울산/경남(37%), 보수 성향층(6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부정적 평가'는 50대 이하(18~29세 76%, 30대 83%, 40대 82%, 50대 74%), 광주/전라(89%), 진보 성향층(94%)과 중도층(73%)에서 높음.



구분	사례수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종합평가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모름/무응답
전체	(1,265)	9	21	17	51	30	68	2
연령	18세-29세 (177)	3	15	25	51	19	76	6
	30대 (217)	5	12	22	61	16	83	1
	40대 (241)	5	12	17	65	17	82	1
	50대 (263)	7	17	13	61	24	74	2
	60대 (223)	18	28	15	39	46	53	0
	70세 이상 (144)	19	43	14	24	62	38	1
지역	서울 (256)	6	20	15	56	26	71	3
	인천/경기 (408)	9	20	17	52	29	69	2
	대전/충청(세종) (126)	15	18	17	47	33	64	2
	광주/전라 (126)	3	8	19	70	11	89	1
	대구/경북 (118)	13	33	20	34	46	54	0
	부산/울산/경남 (179)	13	24	19	42	37	61	2
이념 성향	강원/제주 (52)	3	25	20	51	29	71	0
	보수 (376)	22	41	17	19	62	36	2
	중도 (450)	4	20	19	54	24	73	3
	진보 (394)	2	4	15	79	6	94	0
	모름/무응답 (45)	12	16	19	47	27	66	7

I. 대통령 국정운영 및 정당

2. 정당 지지도

문2 문2-1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정당과 창당 예정인 다음 정당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무작위 순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재질문)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생각되는 정당은요? 보기는 이전에 불러드린 순서와 동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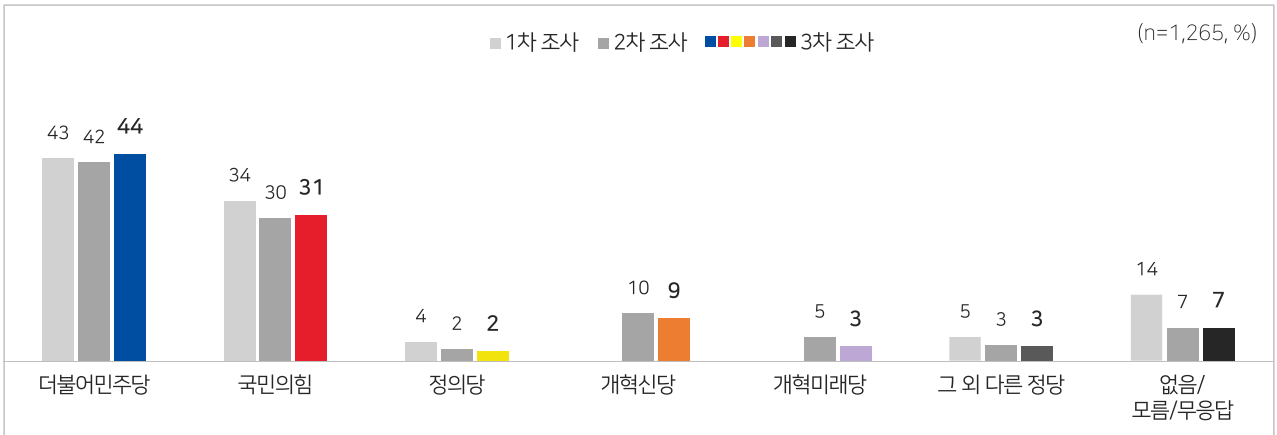
-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31%, '개혁신당' 9%, '개혁미래당' 3%, '정의당' 2%임('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 7%).
- 2차 조사 대비 큰 차이는 없으며, 더불어민주당 2%p., 국민의힘 1%p.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는 아님.

※ 2차조사에서는 보기에 이준석 중심 신당(개혁신당), 이낙연 중심 신당(개혁미래당)으로 조사함.

✓ 2차조사 더불어민주당 지지층(n=536)에서 개혁신당으로 2% 이탈함.

✓ 2차조사 국민의힘 지지층(n=356)에서 개혁신당으로 2% 이탈함.

✓ 2차조사 무당파층(n=75)에서는 더불어민주당 16%, 국민의힘 7%, 개혁신당 5%, 개혁미래당 4%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사례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개혁신당	개혁미래당	그 외 다른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전체	(1,265)	44	31	2	9	3	3	7
연령	18세-29세 (177)	37	22	4	13	2	3	19
	30대 (217)	43	22	2	10	8	4	11
	40대 (241)	58	16	2	9	5	5	5
	50대 (263)	55	26	3	8	1	2	4
	60대 (223)	37	46	1	8	0	3	4
	70세 이상 (144)	30	58	2	3	2	2	2
지역	서울 (256)	43	28	4	11	4	3	8
	인천/경기 (408)	49	29	2	8	3	3	6
	대전/충청(세종) (126)	38	33	1	8	1	5	14
	광주/전라 (126)	71	8	4	9	2	3	3
	대구/경북 (118)	32	48	2	7	0	4	7
	부산/울산/경남 (179)	32	39	3	9	5	2	10
2차 조사 지지 정당	강원/제주 (52)	39	38	2	8	9	0	4
	더불어민주당 (536)	92	1	1	2	0	2	3
	국민의힘 (356)	2	93	0	2	0	1	3
	정의당 (29)	20	10	52	9	3	3	4
	개혁신당 (122)	15	9	5	59	5	2	6
	개혁미래당 (68)	17	11	5	14	39	2	11
그 외 다른 정당 (39)	18	16	0	5	3	57	2	
없음/모름/무응답 (75)	16	7	1	5	4	4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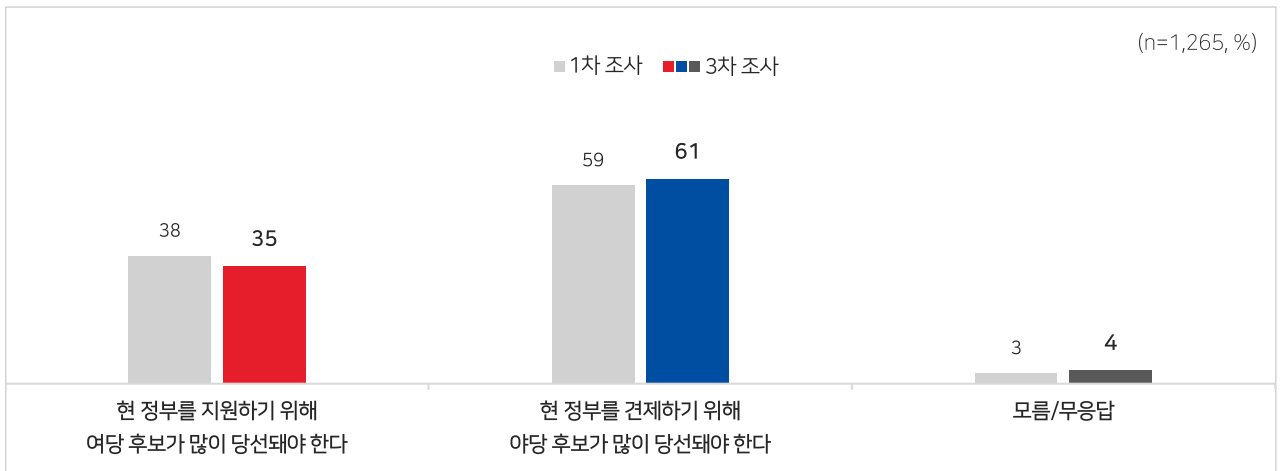
II. 총선 및 정치 의식

1. 총선에 대한 인식

문3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다음 두 가지 주장 중에 어느 주장에 조금이라도 더 공감이 가십니까?

- 총선에 대한 인식을 보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61%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응답 35%보다 26%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정부 견제론'이 우세함.
- 1차조사에 비해, '정부 견제론'은 2%p. 증가, '정부 지원론'은 3%p. 감소하였으나, 큰 변화는 없음.

- ✓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0대(70%)와 40대(77%), 50대(69%), 광주/전라(87%), 진보 성향층(91%)과 중도층(65%)에서 높음.
- ✓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60대 이상(60대 51%, 70세 이상 65%), 대구/경북(57%), 부산/울산/경남(45%), 보수 성향층(7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구분	사례수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모름/ 무응답
전체	(1,265)	35	61	4
연령	18세-29세 (177)	27	63	11
	30대 (217)	24	70	7
	40대 (241)	20	77	3
	50대 (263)	30	69	1
	60대 (223)	51	48	1
	70세 이상 (144)	65	35	1
지역	서울 (256)	33	64	4
	인천/경기 (408)	32	64	4
	대전/충청(세종) (126)	41	54	5
	광주/전라 (126)	9	87	4
	대구/경북 (118)	57	41	3
	부산/울산/경남 (179)	45	51	3
	강원/제주 (52)	33	65	2
이념 성향	보수 (376)	72	25	3
	중도 (450)	29	65	5
	진보 (394)	7	91	2
	모름/무응답 (45)	32	5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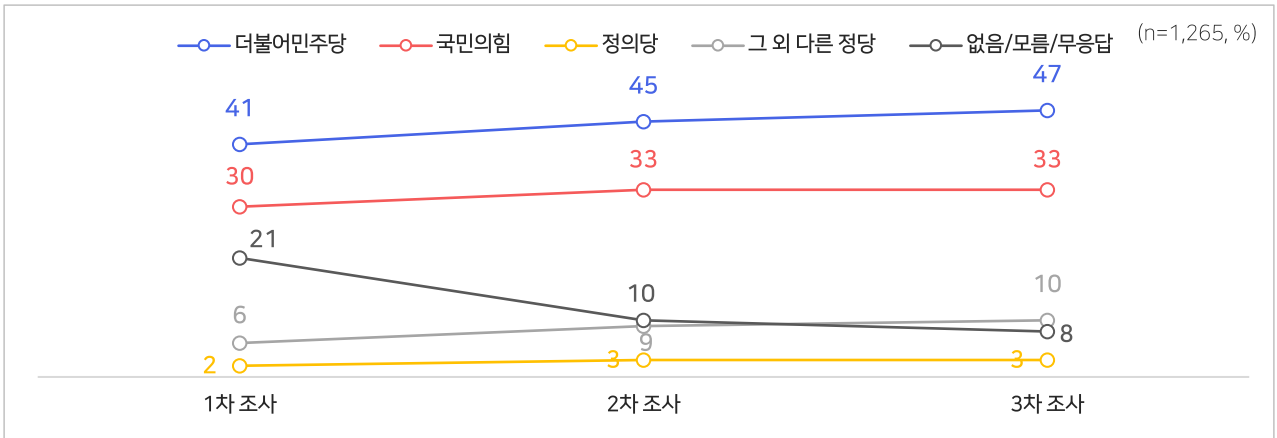
II. 총선 및 정치 의식

2-1.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정당(3당 구도)

문5

선생님께서서는 4월 총선에서 다음과 같은 정당구도가 된다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 하시겠습니까?

- 3당 구도의 총선 지역구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 33%, '정의당' 3%임 ('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 8%).
 - 2차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은 2%p. 증가, 국민의힘은 비슷한 수준(무당파층 2%p. 감소, 1차 21%, 2차 10%, 3차 8%)
 - 2차조사 무당파층(n=117)의 29%는 더불어민주당으로, 8%는 국민의힘으로 이동함.
- ✓ '더불어민주당'은 40대(60%)와 50대(56%), 인천/경기(52%), 광주/전라(73%), 진보 성향층(77%)에서 높음.
- ✓ '국민의힘'은 60대 이상(60대 47%, 70세 이상 60%), 대구/경북(52%), 부산/울산/경남(42%), 보수 성향층(6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구분	사례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그 외 다른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전체	(1,265)	47	33	3	10	8
연령	18세-29세 (177)	45	25	4	10	16
	30대 (217)	52	22	0	14	11
	40대 (241)	60	20	4	11	7
	50대 (263)	56	27	3	8	6
	60대 (223)	36	47	2	9	6
	70세 이상 (144)	31	60	2	6	1
지역	서울 (256)	46	29	3	13	9
	인천/경기 (408)	52	29	3	10	6
	대전/충청(세종) (126)	44	37	1	7	11
	광주/전라 (126)	73	9	6	7	5
	대구/경북 (118)	32	52	2	6	8
	부산/울산/경남 (179)	36	42	3	9	11
이념 성향	강원/제주 (52)	45	39	0	13	3
	보수 (376)	17	68	1	9	6
	중도 (450)	48	26	3	14	10
	진보 (394)	77	8	4	6	6
2차조사 지역구 투표정당 (3당)	모름/무응답 (45)	47	29	5	1	18
	더불어민주당 (576)	91	1	1	4	3
	국민의힘 (394)	3	92	1	2	3
	정의당 (29)	24	9	50	6	11
	그 외 다른 정당 (109)	12	8	5	66	9
없음/모름/무응답 (117)	29	8	2	15	45	

II. 총선 및 정치 의식

2-2.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정당(신당 포함, 5당 구도)

문5

그러면, 신당창당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당구도가 된다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 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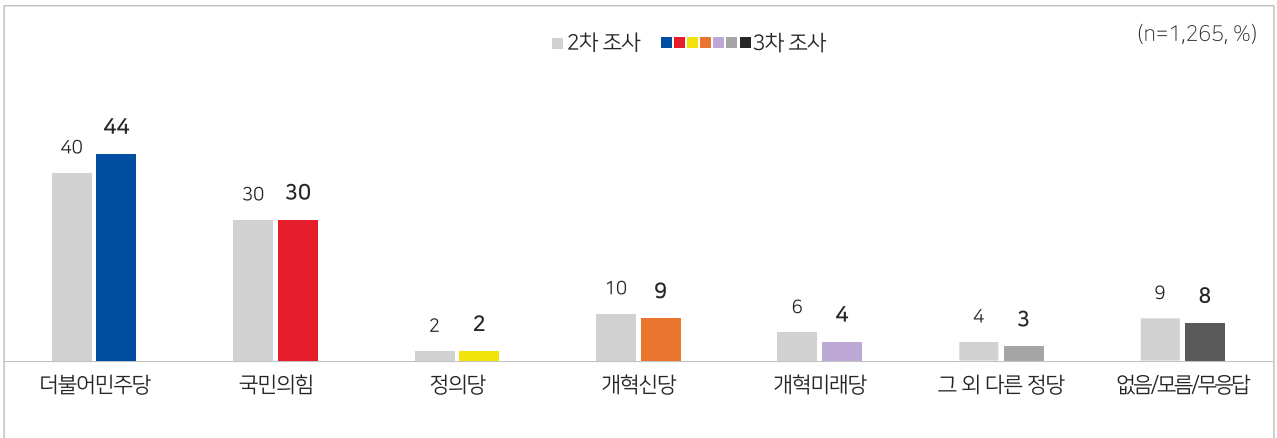
- 신당 포함 5당 구도의 총선 지역구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30%, '개혁신당' 9%, '개혁미래당' 4%, '정의당' 2%임('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 8%).
- 3당구도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각각 3%p. 감소하여 신당효과로 인한 이탈은 비슷한 수준.
- 2차조사 대비, 민주당은 4%p. 증가, 국민의힘은 비슷한 수준임(개혁신당+개혁미래당 : 3%p. 감소).

※ 2차조사에서는 보기에 이준석 중심 신당(개혁신당), 이낙연 중심 신당(개혁미래당)으로 조사함.

✓ 3당구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n=606)에서 개혁신당으로 4%, 개혁미래당으로 1% 이탈함.

✓ 3당구도 국민의힘 지지층(n=402)에서 개혁신당으로 4%, 개혁미래당으로 1% 이탈함.

✓ 3당구도 무당파층(n=97)의 9%는 개혁신당으로, 4%는 개혁미래당으로 이동함.



구분	사례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개혁신당	개혁미래당	그 외 다른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전체	(1265)	44	30	2	9	4	3	8
연령	18세-29세 (177)	38	21	4	14	4	1	17
	30대 (217)	47	21	1	10	8	4	9
	40대 (241)	56	17	2	8	5	5	7
	50대 (263)	55	25	3	8	2	3	5
	60대 (223)	35	44	1	8	2	4	6
	70세 이상 (144)	27	59	3	5	2	2	4
지역	서울 (256)	41	27	3	12	4	4	9
	인천/경기 (408)	47	28	2	9	4	3	6
	대전/충청(세종) (126)	44	34	0	7	2	3	9
	광주/전라 (126)	69	8	5	8	3	3	4
	대구/경북 (118)	31	49	1	8	0	4	8
	부산/울산/경남 (179)	32	38	3	8	4	3	11
지역구 투표정당 (3당)	강원/제주 (52)	45	34	0	4	9	0	8
	더불어민주당 (606)	89	0	2	4	1	2	2
	국민의힘 (402)	0	92	0	4	1	1	2
	정의당 (32)	13	6	53	16	6	0	6
	그 외 다른 정당 (128)	3	2	1	49	22	22	3
	없음/모름/무응답 (97)	13	2	0	9	4	3	70
2차조사 지역구 투표정당 (5당)	더불어민주당 (513)	91	1	2	2	1	1	2
	국민의힘 (351)	2	91	0	1	1	2	3
	정의당 (28)	34	11	35	13	0	0	7
	개혁신당 (121)	14	11	3	60	3	3	7
	개혁미래당 (68)	23	11	4	7	40	7	8
	그 외 다른 정당 (44)	18	9	2	15	3	48	5
없음/모름/무응답 (100)	24	12	2	7	1	2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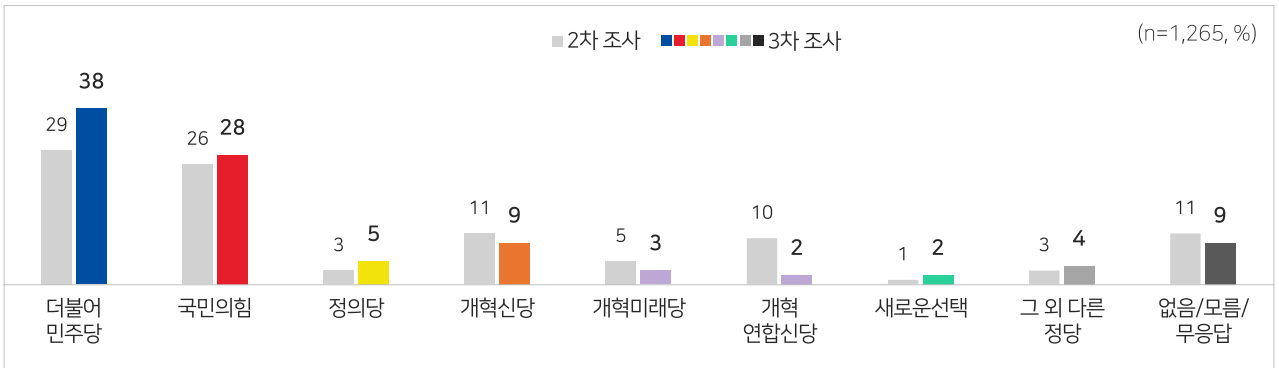
II. 총선 및 정치 의식

3.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 정당

문6 그러면, 다음과 같은 정당구도로 치러진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는 어느 정당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 총선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28%, '개혁신당' 9%, '정의당' 5%, '개혁미래당' 3%, '개혁연합신당' 2%, '새로운선택' 2%임('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 9%).
- 2차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은 9%p. 증가,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각각 2%p. 증가함.
- 2차조사 대비,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은 각각 2%p. 감소, 개혁연합신당은 8%p. 감소함.

- ✓ '더불어민주당'은 40대(44%)와 50대(49%), 광주/전라(60%)에서 높음.
- ✓ '국민의힘'은 60대 이상(60대 42%, 70세 이상 55%), 대구/경북(4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지역구 투표(3당기준)에서 민주당 지지층(n=606)의 75%는 계속 민주당 지지를, 국민의힘 지지층(n=402)의 82%는 국민의힘 지지를 밝혀, 비례대표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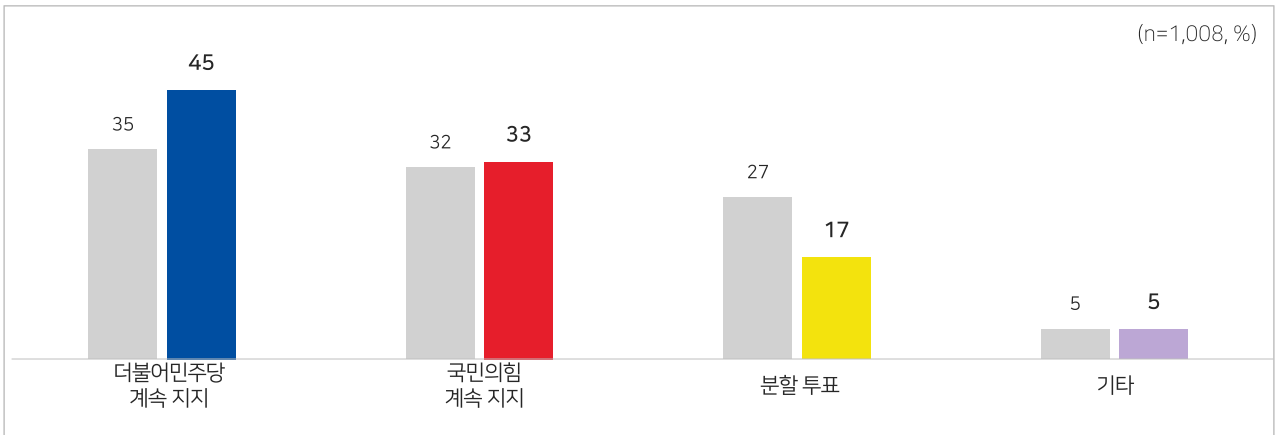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개혁신당	개혁미래당	개혁연합신당	새로운선택	그 외 다른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전체	(1,265)	38	28	5	9	3	2	2	4	9
연령	18세-29세 (177)	32	19	8	13	3	1	1	2	21
	30대 (217)	39	20	1	9	7	3	3	6	12
	40대 (241)	44	14	5	9	5	4	2	6	9
	50대 (263)	49	22	6	8	2	2	2	3	7
	60대 (223)	33	42	3	8	0	2	2	5	5
	70세 이상 (144)	25	55	4	6	3	1	0	3	2
지역	서울 (256)	36	26	6	10	4	3	1	6	8
	인천/경기 (408)	41	25	5	9	3	1	3	5	8
	대전/충청(세종) (126)	35	34	2	8	2	1	1	4	13
	광주/전라 (126)	60	6	7	6	2	6	1	3	8
	대구/경북 (118)	25	42	4	8	0	2	3	5	11
	부산/울산/경남 (179)	28	34	5	9	6	2	0	3	12
지역구 투표정당 (3당)	강원/제주 (52)	37	37	1	10	7	0	0	0	8
	더불어민주당 (606)	75	1	5	5	1	3	1	3	6
	국민의힘 (402)	1	82	2	5	2	1	2	2	4
	정의당 (32)	15	2	55	12	7	3	0	0	5
	그 외 다른 정당 (128)	6	1	2	42	20	4	2	20	3
	없음/모름/무응답 (97)	12	7	2	7	4	0	6	2	61
2차 조사 비례대표 투표정당	더불어민주당 (364)	87	2	3	3	1	0	0	1	4
	국민의힘 (306)	2	89	1	2	1	1	2	1	3
	정의당 (40)	18	7	62	2	2	4	0	0	4
	개혁신당 (135)	11	11	7	53	3	2	4	1	8
	개혁미래당 (70)	21	9	4	7	39	3	2	6	10
	개혁연합신당 (130)	61	0	3	6	1	12	2	13	3
	새로운선택 (14)	14	0	7	22	7	16	14	0	22
그 외 다른 정당 (40)	10	15	0	10	3	0	0	61	2	
없음/모름/무응답 (126)	21	13	3	4	2	0	4	2	51	

II. 총선 및 정치 의식

4. 일치투표 vs 분할투표(지역구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지층)

- 문4 선생님께서는 4월 총선에서 다음과 같은 정당구도가 된다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 문6 그러면, 다음과 같은 정당구도로 치러진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는 어느 정당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 3당구도 총선 지역구 정당 투표와 비례대표 정당 투표가 일치하는 응답자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계속 지지층은 45%, 국민의힘 계속 지지층은 33%이며, 양 정당에서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타 정당으로 이탈한 분할투표 계층은 17%로 분석됨.
 - 2차조사에서는 분할투표층이 27%였으나, 신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 및 양당의 결집으로 인해 거대양당 지지층에서 분할투표층이 10%p. 감소함.
- ✓ '더불어민주당 계속 지지층'은 40대(55%)와 50대(56%), 광주/전라(68%), 진보 성향층(73%)에서 높음.
- ✓ '국민의힘 계속 지지층'은 60대 이상(60대 49%, 70세 이상 59%), 대구/경북(48%), 부산/울산/경남(43%), 보수 성향층(6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분할투표층'은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이(20%)에서 다소 높으나, 보수(14%), 진보(18%)층과 큰 차이가 없음.



구분	사례수	더불어민주당 계속 지지	국민의힘 계속 지지	분할투표	기타	
전체(민주당+국민의힘)	(1,008)	45	33	17	5	
연령	18세-29세	(122)	41	25	21	12
	30대	(160)	50	22	21	7
	40대	(192)	55	17	22	6
	50대	(218)	56	26	15	3
	60대	(186)	36	49	12	3
	70세 이상	(130)	27	59	13	2
지역	서울	(194)	46	33	18	4
	인천/경기	(330)	49	30	16	5
	대전/충청(세종)	(102)	41	39	13	7
	광주/전라	(103)	68	7	19	6
	대구/경북	(98)	28	48	18	6
	부산/울산/경남	(139)	33	43	20	5
이념 성향	강원/제주	(42)	38	39	18	6
	보수	(314)	16	68	14	2
	중도	(327)	44	27	20	10
	진보	(333)	73	7	18	3
	모름/무응답	(34)	45	29	10	15

II. 총선 및 정치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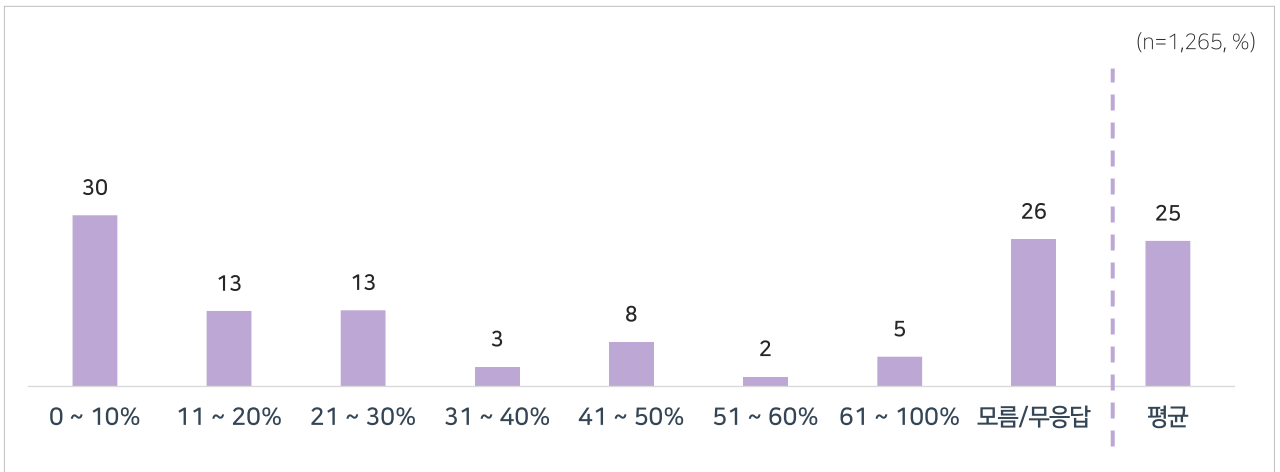
5. 비례의석 제3세력 비중

문7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의 주요 초점은 47석의 비례의석 배분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친국민의힘과 친민주당 계열을 제외한 '제3세력'이 이 중 몇 %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비례의석 배분에 대해 친국민의힘과 친민주당 계열을 제외한 제3세력이 '10% 이하'의 비중을 가져가야 한다는 응답이 30%, '11~20%'와 '21~30%' 각각 13%, '41~50%' 8%, '61% 이상' 5% 등의 순으로 나타남(평균 25%, 47석 의석의 약 12석).

✓ 비례대표 투표 '신당' 지지층(n=214)에서 원하는 비례의석 47석 중 제3세력 비중 평균은 37%(47석 의석의 약 17석)이며, '정의당' 지지층(n=58) 평균 36%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n=485) 평균 21%, '국민의힘' 지지층(n=339) 평균 1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구분	사례수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100%	모름/무응답	평균(%)
전체	(1,265)	30	13	13	3	8	2	5	26	25
연령	18세-29세 (177)	17	14	11	7	5	0	6	40	29
	30대 (217)	28	14	14	4	5	1	4	29	23
	40대 (241)	33	16	13	5	8	2	5	18	25
	50대 (263)	35	13	16	2	8	2	5	19	25
	60대 (223)	36	11	12	1	10	3	7	21	26
	70세 이상 (144)	28	10	14	2	10	2	4	30	24
지역	서울 (256)	29	16	16	4	6	2	6	21	26
	인천/경기 (408)	30	12	13	3	9	1	5	26	25
	대전/충청(세종) (126)	36	9	11	7	6	1	3	27	22
	광주/전라 (126)	30	14	11	2	5	1	9	28	27
	대구/경북 (118)	21	16	14	3	9	2	6	29	30
	부산/울산/경남 (179)	31	14	15	2	5	3	3	26	23
강원/제주 (52)	29	8	9	4	18	0	6	26	29	
이념 성향	보수 (376)	38	10	12	3	7	1	4	24	22
	중도 (450)	22	13	13	4	9	2	6	30	29
	진보 (394)	31	16	15	3	7	2	5	20	25
	모름/무응답 (45)	25	6	11	1	4	0	3	50	22
기존 정당	더불어민주당 (485)	38	13	12	1	6	1	4	25	21
	국민의힘 (339)	40	10	9	2	6	1	2	29	18
vs 신당	정의당 (58)	18	18	15	8	10	9	11	11	<u>36</u>
	신당 (214)	10	18	22	9	14	2	9	16	<u>37</u>
그 외 다른 정당	(58)	17	16	15	5	15	2	16	14	40
없음/모름/무응답	(111)	10	10	14	3	7	2	3	5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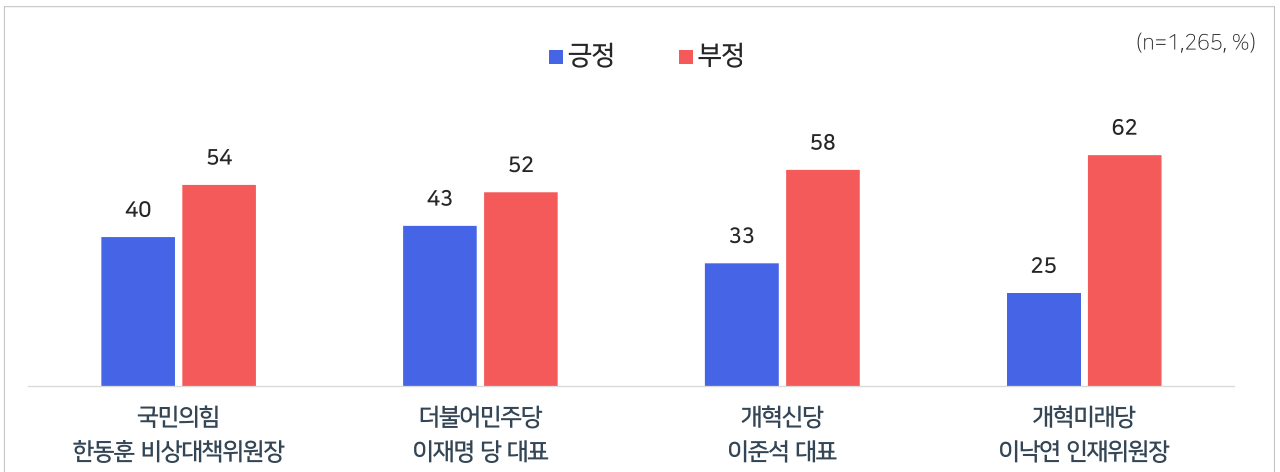
II. 총선 및 정치 의식

6. 직무수행 평가(주요 당 대표 등)

문8

선생님께서서는 다음 주요 정당의 대표나 주요 인물이 얼마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 정당 대표나 주요 인물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매우+잘하는 편)에서 4명의 주요 인물이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높은 가운데, 긍정적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43%,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40%,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33%, '개혁미래당 이낙연 인재위원장' 25%임.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긍정 평가는 40대(57%)와 50대(53%), 광주/전라(64%), 진보 성향층(6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긍정 평가는 60대 이상(60대 55%, 70세 이상 65%), 대구/경북(56%), 부산/울산/경남(49%), 보수 성향층(72%)에서 높음.
- ✓ 소속 정당 지지층만을 기준으로 긍정적인 평가는 이재명 80%, 한동훈 88%, 이준석 90%, 이낙연 77%로 나타남.



구분	사례수	한동훈		이재명		이준석		이낙연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전체	(1,265)	40	54	43	52	33	58	25	62
연령	18세-29세 (177)	33	52	37	51	36	45	23	55
	30대 (217)	31	58	37	58	36	52	25	59
	40대 (241)	24	72	57	38	32	59	20	71
	50대 (263)	35	63	53	44	34	60	19	72
	60대 (223)	55	43	37	62	31	64	31	57
	70세 이상 (144)	65	31	34	65	28	67	36	54
지역	서울 (256)	37	56	40	55	33	59	20	68
	인천/경기 (408)	39	57	46	49	34	57	26	62
	대전/충청(세종) (126)	40	47	44	50	26	59	24	60
	광주/전라 (126)	17	80	64	32	40	56	18	77
	대구/경북 (118)	56	38	29	69	28	61	33	48
	부산/울산/경남 (179)	49	45	40	55	34	56	29	55
이념 성향	강원/제주 (52)	39	57	32	66	34	62	34	58
	보수 (376)	72	25	19	79	25	69	37	52
	중도 (450)	36	56	41	54	38	51	26	57
	진보 (394)	14	81	68	27	36	56	14	79
	모름/무응답 (45)	32	50	51	33	27	54	22	53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567)	11	85	80	17	36	57	10
국민의힘 (384)		88	9	7	91	16	77	43	42
정의당 (31)		22	78	33	54	25	51	17	67
개혁신당 (113)		37	58	22	74	90	9	30	57
개혁미래당 (41)		31	65	15	85	43	57	77	23
그 외 다른 정당 (44)		32	65	26	69	21	72	27	58
없음/모름/무응답 (85)		20	39	22	51	25	36	17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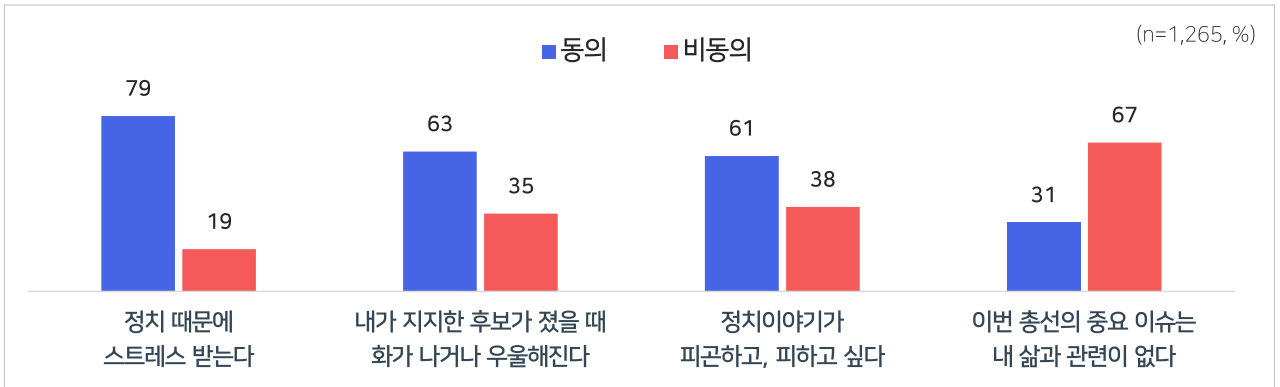
II. 총선 및 정치 의식

7. 정치관련 인식

문9 다음 정치 관련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 정치 관련 문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에 대해 '동의한다'(매우+다소)는 79%, '내가 지지한 후보가 졌을 때 화가 나거나 우울해진다' 63%, '정치이야기가 피곤하고, 피하고 싶다' 61%, '이번 총선의 중요 이슈는 내 삶과 관련이 없다' 31% 순으로 나타남.

- ✓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50대(85%)와 60대(88%), 서울(85%), 진보층(8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4%)에서 높음.
- ✓ '내가 지지한 후보가 졌을 때 화가 나거나 우울해진다'는 50대 이상(50대 70%, 60대 74%, 70세 이상 79%), 광주/전라(74%), 진보 성향층(7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2%)에서 높음.
- ✓ '정치이야기가 피곤하고, 피하고 싶다'는 60대 이상(60대 69%, 70세 이상 78%), 광주/전라(70%)에서 높음.
- ✓ '이번 총선의 중요 이슈는 내 삶과 관련이 없다'는 60대 이상(60대 41%, 70세 이상 48%), 보수 성향층(36%), 국민의힘 지지층(38%)에서 비교적 높음.



구분	사례수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내가 지지한 후보가 졌을 때 화가 나거나 우울해진다		정치이야기가 피곤하고, 피하고 싶다		이번 총선의 중요 이슈는 내 삶과 관련이 없다	
		동의	비동의	동의	비동의	동의	비동의	동의	비동의
전체	(1,265)	79	19	63	35	61	38	31	67
연령	18세-29세 (177)	63	34	41	54	53	45	26	71
	30대 (217)	70	26	47	51	53	45	20	76
	40대 (241)	83	16	64	35	54	45	21	78
	50대 (263)	85	15	70	29	59	41	33	66
	60대 (223)	88	11	74	24	69	30	41	57
	70세 이상 (144)	85	13	79	19	78	21	48	51
지역	서울 (256)	85	15	65	34	59	41	24	74
	인천/경기 (408)	80	18	62	36	60	39	29	68
	대전/충청(세종) (126)	77	20	62	35	61	37	34	64
	광주/전라 (126)	78	21	74	26	70	30	34	65
	대구/경북 (118)	82	14	62	36	57	40	37	59
	부산/울산/경남 (179)	74	24	61	35	61	37	32	64
이념 성향	강원/제주 (52)	72	25	50	49	58	42	39	57
	보수 (376)	80	19	66	33	62	38	36	63
	중도 (450)	77	20	52	44	60	38	31	66
	진보 (394)	84	16	72	27	58	42	26	72
	모름/무응답 (45)	61	26	65	23	76	14	35	52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567)	84	15	72	27	60	40	26	72
	국민의힘 (384)	81	17	65	33	64	35	38	60
	정의당 (31)	82	15	61	36	64	33	32	65
	개혁신당 (113)	72	28	49	51	59	41	35	65
	개혁미래당 (41)	68	32	50	50	60	40	24	76
	그 외 다른 정당 (44)	83	15	67	33	39	61	27	73
	없음/모름/무응답 (85)	57	33	17	67	63	27	27	60

II. 총선 및 정치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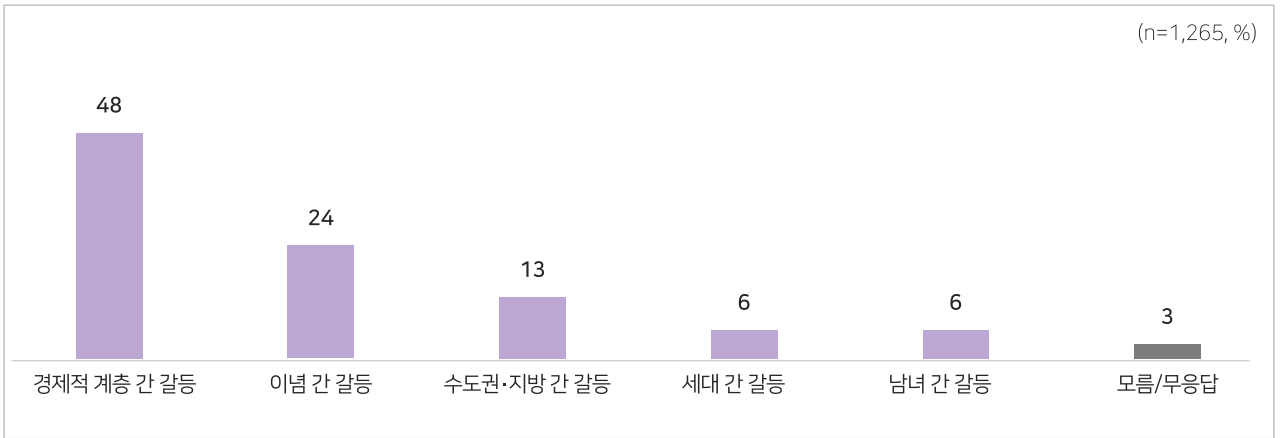
8. 22대 국회 중점 이슈

문10 선생님께서 이번 선거로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다음 중 어떤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2대 국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이슈를 질문한 결과, '경제적 계층 간 갈등' 48%, '이념 간 갈등' 24%, '수도권·지방 간 갈등' 13%, '세대 간 갈등'과 '남녀 간 갈등' 각각 6% 순으로 나타남. (모름/무응답 3%)

✓ '경제적 계층 간 갈등'은 40대(57%), 진보 성향층(5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8%)에서 높음.

✓ '이념 간 갈등'은 60대(35%), 대구/경북(32%), 보수 성향층(3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구분	사례수	경제적 계층 간 갈등	이념 간 갈등	수도권·지방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남녀 간 갈등	모름/무응답
전체	(1,265)	48	24	13	6	6	3
성별	남성 (667)	46	25	13	6	7	3
	여성 (598)	50	24	12	6	5	4
경제적 계층 인식	상위 계층 (250)	43	26	15	6	8	3
	중위 계층 (548)	48	23	13	7	7	3
	하위 계층 (457)	49	25	12	6	5	3
	모름/무응답 (10)	38	18	12	9	0	24
이념 성향	보수 (376)	37	<u>31</u>	14	8	6	3
	중도 (450)	49	22	11	7	7	3
	진보 (394)	<u>57</u>	22	12	4	4	2
	모름/무응답 (45)	40	10	23	9	4	14
수도권 vs 지방	수도권 (664)	<u>51</u>	23	9	7	7	3
	지방 (601)	44	25	<u>16</u>	5	5	4
20/30 vs 50/60	20/30 (394)	43	15	13	<u>9</u>	<u>15</u>	5
	50/60 (486)	48	<u>32</u>	11	5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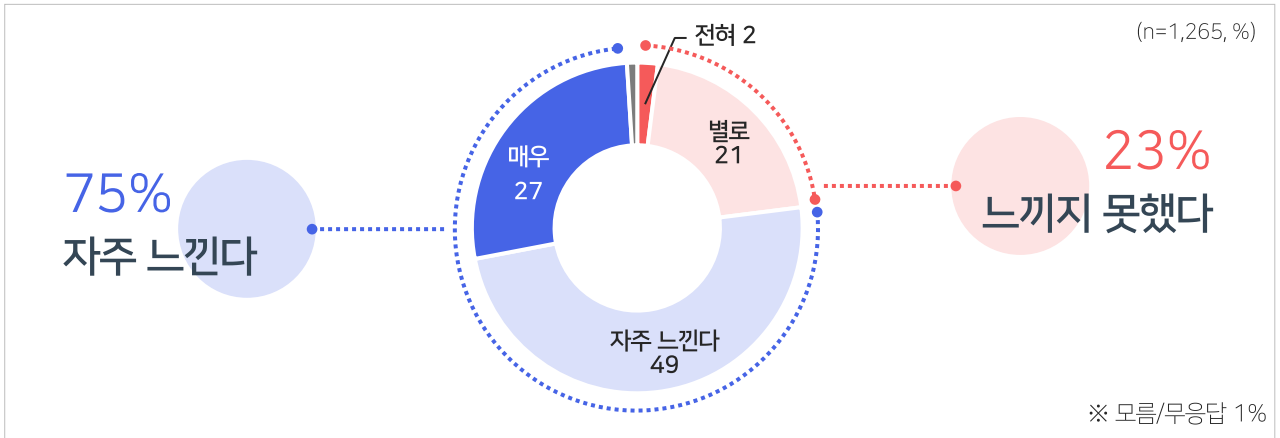
II. 총선 및 정치 의식

9-1. 일상 갈등 체감 : 경제적 계층 간 갈등

문11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다음문제에 대한 갈등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 일상 생활에서 '경제적 계층 간 갈등'에 대해 '자주 느낀다'(매우+자주)는 응답은 75%, '느끼지 못했다'(전혀+별로)는 23%임(모름/무응답 1%).
- 자신의 경제적 계층이 하위층이라는 응답자는 '경제적 계층 간 갈등' 체감 응답이 81%인 반면, 상위층이라는 응답자는 체감 응답이 69%로 12%p. 차이를 보임.

- ✓ '자주 느낀다'는 50대(83%)와 60대(82%)에서 높음.
- ✓ '느끼지 못했다'는 18~29세(3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구분	사례수	매우 자주 느낀다	자주 느낀다	별로 느끼지 못했다	전혀 느끼지 못했다	종합평가			
						자주 느낀다	느끼지 못했다	모름/무응답	
전체	(1,265)	27	49	21	2	75	23	1	
연령	18세-29세	(177)	25	38	29	2	63	32	5
	30대	(217)	29	43	24	2	72	26	2
	40대	(241)	24	52	21	2	76	23	1
	50대	(263)	28	54	15	2	83	17	0
	60대	(223)	26	56	18	0	82	18	0
	70세 이상	(144)	27	46	23	4	73	27	0
경제적 계층 인식	상위 계층	(250)	20	49	28	1	69	30	1
	중위 계층	(548)	27	47	23	2	74	25	1
	하위 계층	(457)	29	52	16	2	81	17	1
	모름/무응답	(10)	31	14	32	12	44	44	12

II. 총선 및 정치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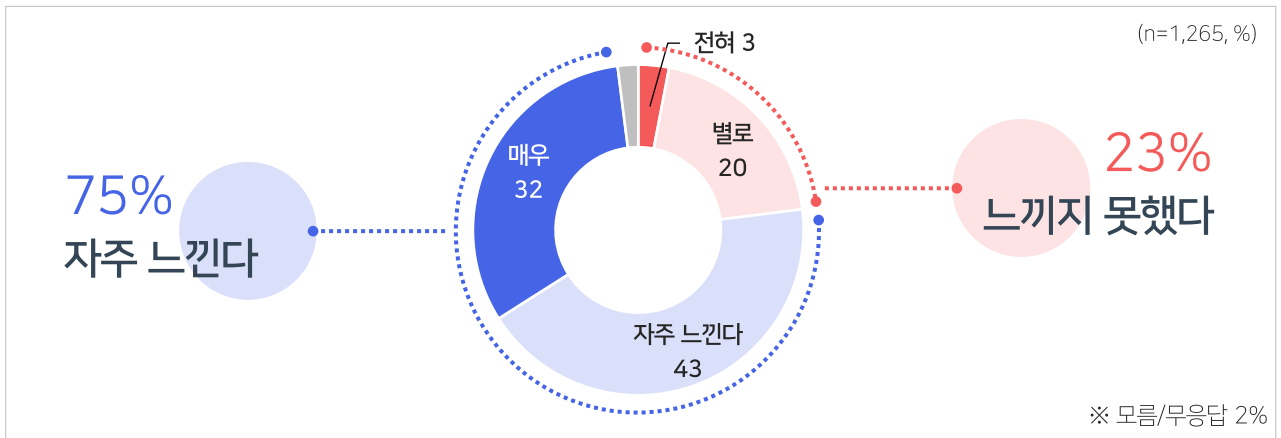
9-2. 일상 갈등 체감 : 이념 간 갈등

문11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다음문제에 대한 갈등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 일상 생활에서 '이념 간 갈등'에 대해 '자주 느낀다'(매우+자주)는 응답은 75%, '느끼지 못했다'(전혀+별로)는 23%임(모름/무응답 2%).
- '자주 느낀다'는 응답은 자신의 이념성향별로 보수(81%) > 진보(77%) > 중도(72%) 순임.

✓ '자주 느낀다'는 50대(81%)와 60대(86%)에서 높음.

✓ '느끼지 못했다'는 30대 이하(18~29세, 30대 각각 3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구분	사례수	매우 자주 느낀다	자주 느낀다	별로 느끼지 못했다	전혀 느끼지 못했다	종합평가			
						자주 느낀다	느끼지 못했다	모름/무응답	
전체	(1,265)	32	43	20	3	75	23	2	
연령	18세-29세	(177)	21	43	25	5	64	30	6
	30대	(217)	25	43	23	7	68	30	2
	40대	(241)	29	44	23	3	73	26	1
	50대	(263)	41	40	16	3	81	19	0
	60대	(223)	38	48	13	0	86	14	0
	70세 이상	(144)	37	39	19	2	76	22	3
지역	서울	(256)	29	47	18	4	76	22	2
	인천/경기	(408)	36	41	19	3	77	22	1
	대전/충청(세종)	(126)	37	39	20	4	75	24	1
	광주/전라	(126)	36	37	22	4	73	26	1
	대구/경북	(118)	29	50	19	2	79	21	1
	부산/울산/경남	(179)	28	42	24	2	69	26	5
이념 성향	강원/제주	(52)	19	52	20	5	71	25	4
	보수	(376)	32	49	16	3	81	18	1
	중도	(450)	32	40	23	4	72	27	1
	진보	(394)	34	43	19	3	77	22	1
	모름/무응답	(45)	23	22	26	9	45	34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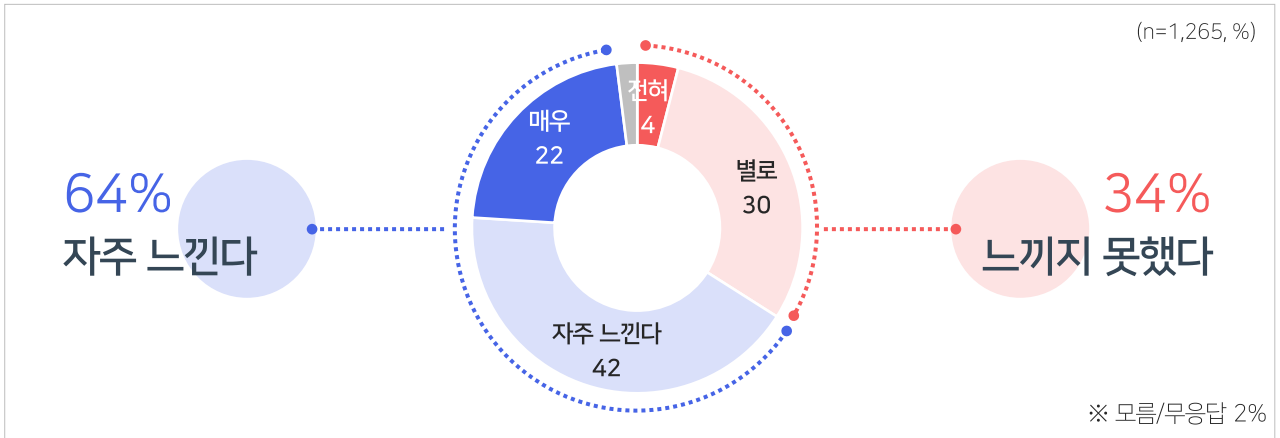
II. 총선 및 정치 의식

9-3. 일상 갈등 체감 : 수도권·지방 간 갈등

문11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다음문제에 대한 갈등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 일상 생활에서 '수도권·지방 간 갈등'에 대해 '자주 느낀다'(매우+자주)는 응답은 64%, '느끼지 못했다'(전혀+별로)는 34%임(모름/무응답 2%).
- 지방 거주자의 '수도권·지방 간 갈등' 체감 응답이 67%로 수도권 거주자 61%보다 6%p. 높음.

✓ 연령별로는 거의 차이가 없음.



구분	사례수	매우 자주 느낀다	자주 느낀다	별로 느끼지 못했다	전혀 느끼지 못했다	종합평가			
						자주 느낀다	느끼지 못했다	모름/무응답	
전체	(1,265)	22	42	30	4	64	34	2	
연령	18세-29세	(177)	23	38	27	7	61	35	5
	30대	(217)	22	40	30	5	62	36	2
	40대	(241)	20	43	33	2	63	36	1
	50대	(263)	21	45	28	4	66	32	1
	60대	(223)	22	43	31	3	66	34	0
	70세 이상	(144)	23	42	32	2	65	35	0
수도권 vs 지방	수도권	(664)	17	44	33	5	61	37	1
	지방	(601)	26	40	28	3	67	3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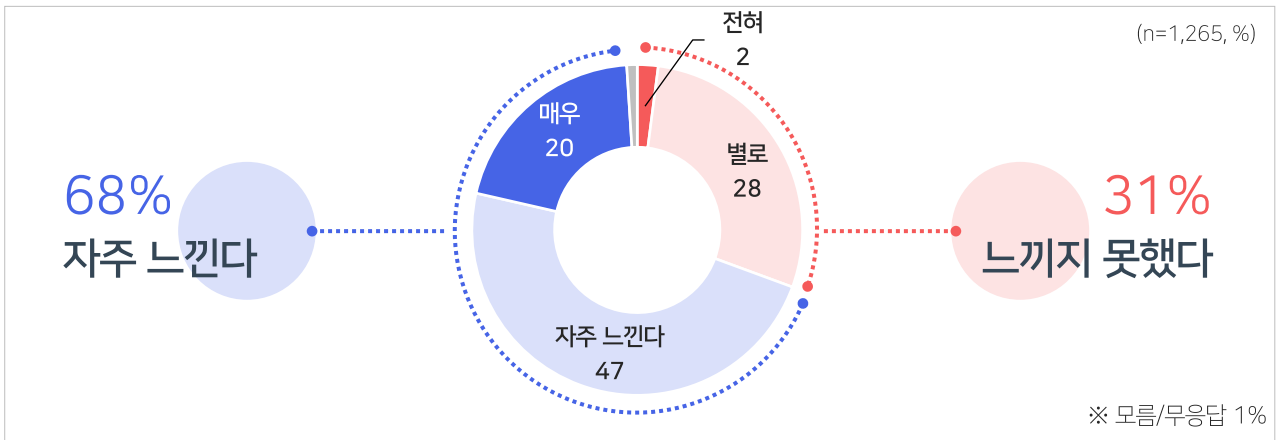
II. 총선 및 정치 의식

9-4. 일상 갈등 체감 : 세대 간 갈등

문11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다음문제에 대한 갈등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 일상 생활에서 '세대 간 갈등'에 대해 '자주 느낀다'(매우+자주)는 응답은 68%, '느끼지 못했다'(전혀+별로)는 31%임(모름/무응답 1%).

✓ 성별, 이념성향, 20/30 vs 50/60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체감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구분	사례수	매우 자주 느낀다	자주 느낀다	별로 느끼지 못했다	전혀 느끼지 못했다	종합평가		
						자주 느낀다	느끼지 못했다	모름/무응답
전체	(1,265)	20	47	28	2	68	31	1
성별	남성 (667)	23	45	28	3	67	32	1
	여성 (598)	18	50	29	2	68	30	2
이념 성향	보수 (376)	22	47	28	3	68	31	1
	중도 (450)	18	49	28	3	68	31	1
	진보 (394)	23	47	27	2	70	29	1
	모름/무응답 (45)	8	35	40	1	43	41	16
20/30 vs 50/60	20/30 (394)	21	45	27	4	66	31	3
	50/60 (486)	21	48	29	2	69	30	0

II. 총선 및 정치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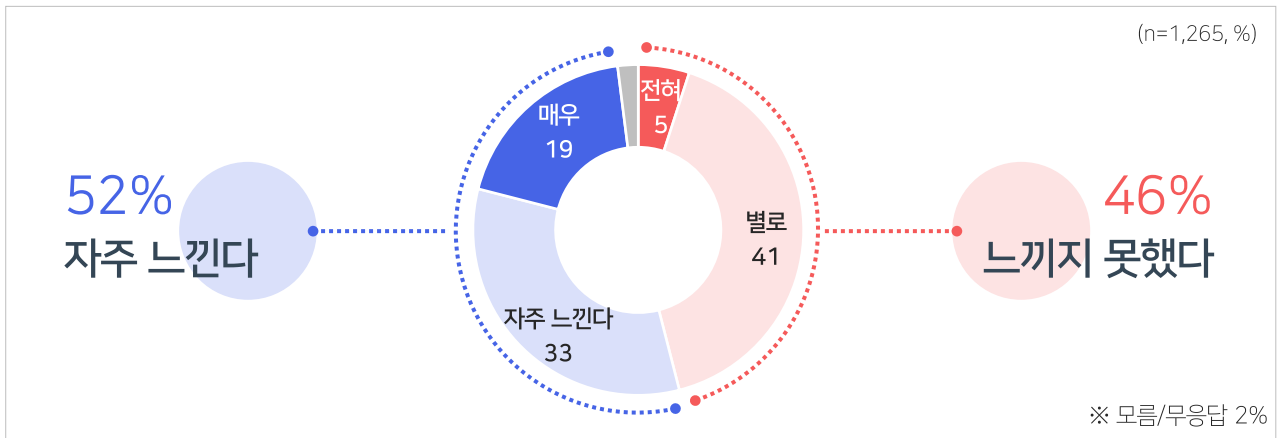
9-5. 일상 갈등 체감 : 남녀 간 갈등

문11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다음문제에 대한 갈등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 일상 생활에서 '남녀 간 갈등'에 대해 '자주 느낀다'(매우+자주)는 응답은 52%, '느끼지 못했다'(전혀+별로)는 46%임(모름/무응답 2%).
- 남성과 여성 모두 자 느낀다는 응답이 52%로 동일하여, 차이가 없음.

✓ '자주 느낀다'는 30대 이하(18~29세 76%, 30대 62%)에서 높음.

✓ '느끼지 못했다'는 50대 이상(50대 52%, 60대 59%, 70세 이상 62%)에서 높아, 성별보다는 연령별로 남녀 간 갈등 체감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남.



구분	사례수	매우 자주 느낀다	자주 느낀다	별로 느끼지 못했다	전혀 느끼지 못했다	종합평가		
						자주 느낀다	느끼지 못했다	모름/무응답
전체	(1,265)	19	33	41	5	52	46	2
성별	남성 (667)	19	32	40	7	52	47	1
	여성 (598)	18	34	42	3	52	45	3
연령	18세-29세 (177)	43	33	16	3	76	19	5
	30대 (217)	24	38	32	5	62	37	2
	40대 (241)	17	35	43	4	52	47	1
	50대 (263)	14	33	50	2	47	52	1
	60대 (223)	7	32	50	9	39	59	2
	70세 이상 (144)	9	27	55	6	37	62	2

2024년 총선거획 조사(3차 패널조사)

연구기관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발행명 MBC 2024년 총선거획 조사(3차 패널조사)

발행일 2024년 02월 05일

발행처 코리아리서치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18, 석오빌딩
TEL : 02-3415-5100

<비매품>